

교회목표

- 1. 천국시민 양성
- 2. 만민에게 전도
- 3. 빈약한 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순례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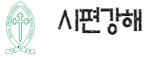
2008년도 표어

교회여, 생명을 잉태하라!
-다음 세대를 품는 교회(요10:10)

행동지침

- 1. 민족 복음화의 산실되어 복음화된 통일조국을 실현하자!
- 2. 신앙의 대잇기 모범을 보이자
- 3. 교육에 대한 국가적 비전을 제시하자

† 발행인 : 이 중 윤 † 발행처 :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210 전화:(02)558-1106 팩스:(02) 558-2107 www.seoulchurch.or.kr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

(시편 90:1-17)



이중윤 목사(서울교회 담임)

성도가 평생 기쁘고 즐겁게 사는 길은 하나님 사랑을 체험하고 하나님 사랑에 만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궁극적으로 인간 마음을 만족시킬 것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말은 성경에 40번 이상 나옵니다. 이 호칭은 엘리야, 엘리사, 다윗과 같은 사람들에게 붙여졌습니다. 모세 역시 민수기 14:6에서 하나님의 사람이라 불렸습니다. 모세는 시편 90편에서 미리암과 아론의 죽음을 보고 매우 어둡고 무거운 기도를 드립니다.

1. 미리암과 아론의 죽음

민수기 20장에는 아론과 미리암이 죽고 모세도 죽을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함으로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임을 선포합니다. 시편 90편은 이 같은 사건을 배경으로 씌어진 시입니다.

미리암의 죽음은 모세에게 커다란 손실이었습니다. 출애굽 당시 미리암은 여선지도자로, 여선지자로 활동했습니다. 그런 미리암이 모세의 지도력에 아론과 더불어 대항했고, 그 결과 하나님의 진노로 나병에 걸린 적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리암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할 때 아론과 함께 모세 편에서 모세를 도왔습니다. 이 같은 미리암의 죽음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하게 합니다.

이 무렵은 모세의 나이는 120세에 가까웠습니다. 모세는 지난 38년간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만 바라보고 살았습니다. 그 소망 속에서 모든 것을 참고 견딘 모세가 불평과 원망하는 백성 앞에서 혈기를 낸 것은 사실 이상할 것이 없는 일이었으나 하나님은 이 사건을 심각하게 다루셨습니다.

이런 중에 아론 역시 죽게 됩니다. 모세는 광야에서 그에게 가장 가까웠던 사람 미리암과 아론의 죽음을 경험했습니다. 시편 90편은 이처럼 덧없는 인생과 하나님의 위엄을 말씀합니다. 모세는 인생이 불확실한 것임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인생은 영원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영원성과 그가 모든 존재의 근본이심을 알았습니다.

이 세상은 인간이 영원히 거할 곳이 아닙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존재하시는 영원자 하나님만이 인생이 거할 수 있는 영원한 거처이며 피난처가 됩니다. 이것이 모세의 고백이고 기도입니다.

2. 덧없는 인생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6절).

천 년 세월도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한 순간에 불과합니다. 사람의 일생은 일장춘몽과 같고 아침에 돋았다가 저녁이면 말라 버리는 풀과 같이 무상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기도를 드리면서 혈기를 내어 바위를 두 번 치므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없게 된 것을 생각했

습니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이까”(11절). 이 말씀은 단순히 인생은 짧고 약하며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영원하시다는 것뿐 아니라 죄의 심판으로 죽음이 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인간의 죽음을 하나님의 영원성과 비교하듯 인간의 죄성을 하나님의 거룩성과 대조시킵니다. 즉 죽음은 죄와 연결되고 죄값으로 죽음이 오는 것을 가르칩니다.

인생무상을 부채질하는 것은 다름 아닌 인간의 무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알 것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알아야 기도도 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서 바른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3. 무상한 인생의 기원

시인은 비탄의 기도가 아니라 희망적인 기도로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달라고 간청함으로 본시를 마무리 합니다.

시인은 자신의 날을 계수하는 지혜를 구합니다(12절). 자신의 날을 계수하며 인생이 짧다는 것을 인식함으로 매일 하나님을 위하여 살 수 있도록 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이 바르고 지혜롭게 진행되는지는 계산해 보아야 합니다.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지니이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13절).

시인은 또 하나님의 긍휼을 간구합니다. 짧은 인생이 하나님의 진노 중에 소멸되는 것은 인간이 바라는 바도 아니지만 주님이 원하시는 일도 아닙니다. 성도가 평생 기쁘고 즐겁게 사는 길은 하나님 사랑을 체험하고 하나님 사랑에 만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궁극적으로 인간 마음을 만족시킬 것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어거스틴도 “당신은 우리를 당신을 위하여 만드셨나이다. 당신 안에서 쉬을 얻을 때까지 우리 마음에는 평안이 없나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지혜와 긍휼을 구하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모세는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은총을 내리사 우리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라고 기도합니다(17절). 그는 자신의 연약함과 죄를 하나님의 은혜에 호소하며 자기 손이 하는 일을 가지 있게 해 달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로부터 아무 것도 필요로 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맡기셨다면 우리는 그 일은 신실하게 수행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은 짧은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더욱 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을 잘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날 주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 잘하였도다’라고 하는 주님의 칭찬을 받는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중윤 목사 방송설교

- TV : 케이블 CH 42(CTS, 기독교TV) 매주 월 오후 1시30분
- 위성 CH 412(CBS TV) 매주일 밤 9시(각 지역별로 케이블 TV로도 시청가능)
- KSB(코리아 위성방송) 제3채널(북중미 지역 해외방송) 매주 월 오후 1시30분(한국시간)
- 라디오 : HLKY 98.1 MHz(기독교 방송) <성서강해> 매주 화 오전 5시30분
- HLKX 106.9 MHz(극동 방송) <생명은 빛으로> 매주 금 오전 9시
- 인터넷 : 기독교 TV (http://www.cts.tv)
- 기독교 방송 (http://www.cbs.co.kr)
- 중국어 인터넷방송 (http://www.c-highway.com)

아가페 타운 드디어 계약

4월11일(금) 오후3시에

우리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땅의 소외된 장애인과 노인들을 위해 설립하려고 기도하던 아가페 타운(사랑의 마을) 본 계약이 오정수 장로, 임상현 장로와 함께 이종윤 목사가 도장을 찍고 감사 기도를 드림으로 마침내 하나님의 은혜로 지난 4월11일(금) 이루어졌다.

이제 우리교회는 경기도 가평군 청평면 하천리 33,180㎡(10,227평) 부지와 건물에 장애인을 위한 종합 교육복지시설과 노인을 위한 요양시설 그리고 연수 시설을 건립하여 종합복지타운-사랑의 마을로 재탄생 시킬 예정이다.

아가페 타운(사랑의 마을)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 이종윤 목사가 영안모자 백성학 회장(집사)과 계약을 마치고 감사의 악수를 했다.

아름답게 건설되어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랑이 실현되는 현장으로 장애인 복지와 교육 및 노인복지에 새로운 지평을 세울 수 있도록 기도한다.

제16차 KIMCHI 신학세미나 특별헌금

- 4월20일(주) 주일예배시간에 -

5월19일(월)부터 28일(수)까지 10일간 프랑스 교계지도자 32명을 초청하는 제16차 KIMCHI 신학세미나를 위한 특별헌금을 드린다.

선교사를 많이 파송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국 교회지도자들을 깨워 복음사역에 열심을 갖게 하는 이번 김치신학세미나에 참가하는 교역자들의 항공료와 체류 중 숙식문제를 위해 온 교회가 헌금에 동참할 것을 권장한다.

김치위원회(위원장 서문석 장로)는 1구좌에 10만 원으로 하고 정성껏 바치되 형편에 따라 1/2구좌(5만원), 1/3구좌(3만원) 혹은 1구좌 이상도 할 수 있다고 한다.

지금까지 성도들의 특별헌금으로 김치신학세미나를 개최해 온 전통에 따라 금년에도 풍성한 헌금과 기도가 모여져 귀한 열매가 맺어지게 될 것이다.

엘리베이터 운행방식 변경되다

지금까지 흡수, 짝수 층 구분 운행으로 에너지 절약을 추구했으나 성도들이 탑승 시 부름버튼 두 개를 함께 눌러 오히려 전력이 낭비되어 왔다.

이번 주부터는 한쪽만 누르면 가까운 곳에 위치한 엘리베이터 한 대만 도착 운행된다. 가까운 층은 걸어서 가며 올라갈 사람이 내려가는 엘리베이터를 타는 역행운행이 없어야겠다.

교인의 증가로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성도들의 편의를 돕기 위해 한티공원을 바라보면서 2층에서 8층까지 5층만 서는 급행 전망엘리베이터 한 대를 증설하는 공사가 지난 주 8일(화)부터 시작되었다.

5월 중순까지 진행되는 공사로 불편함이 있겠으나 더 좋은 환경을 기대하면서 기다려야겠다.

다카 장로교회 예배당을 세운다

우리교회는 모슬렘 땅 방글라데시에 예배당을 세운다. 복음의 불모지에서 낳은 바로이 목사가 1970년대 후반에 한국에 유학을 와서 신학을 공부하고 귀국한 이래 '에덴장로교회'를 설립하여 복음을 전하는 수고를 해왔다. 많은 핍박과 역경 속에서 지금까지 꿋꿋이 믿음으로 버티어오던 중 우리교회 원명희 권사가 해외 선교지에 예배당을 짓도록 거액의 헌금을 하시어 교회가 이를 기금삼아 예배 처소를 마련키로 했다.

바로이 목사는 1994년부터 우리교회 선교사로 임명되어 복음을 위해 헌신하면서 1996년 자립을 선언

했으나 교회가 거의 고사 직전까지 몰려 2003년부터 다시 우리교회의 지원을 받고 있다. 최근 교회명을 변경해달라는 요청이 있어 이종윤 목사가 '다카 장로교회'로 명명했다. 에베소 교회, 갈라디아 교회처럼 교회명은 그 지역 이름을 따르는 것이 성경적이라고 말하는 이 목사는 서울교회 예를 들어 방글라데시 수도인 다카시에 위치한 교회 이름은 다카 장로교회(Dhaka Presbyterian Church)로 한 것이다.

새 예배당을 위해 오는 21일(월) 이종윤 목사는 선교위원장 이영기 장로, 기획위원장 오정수 장로와 함께 방글라데시 현지를 방문할 계획이다.

새가족 환영회

4월19일(토) 오후5시 - 만나홀

우리교회에 등록된 새가족을 환영하는 시간이 4월19일(토) 오후 5시 8층 만나 홀에서 열린다. 새가족 환영회는 새가족들이 잘 정착할 수 있도록 교구 및 각 봉사부서를 소개하고 나눔의 시간을 갖는다.

이번 새가족 환영회는 2007년 12월 16일부터 2008년 4월13일까지 등록된 이들을 대상으로 한다. 우리교회에 등록된 모든 이들이 잘 정착하여 천국시민으로 자라나도록 기도한다.

육군사관학교 진중세례식

5월7일(수) 오후 7시

육사교회당에서 열려

우리교회가 주관하는 2008년 육군사관학교 진중세례식이 5월7일(수) 오후 7시 육사교회당에서 열린다. 이날 진중세례식에는 600여명(세례자: 7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며 우리교회 이종윤 목사는 말씀을 선포하고 세례를 베풀며 호신나 찬양대가 찬양한다.

민족의 75%를 복음화하기 위해 매진하고 있는 우리교회는 비전2020운동본부(위원장: 이갑진 장로)를 주축으로 이 나라의 젊은이들을 먼저 복음화하기 위해 군 선교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육군사관학교, 해군사관학교, 공군사관학교, 간호사관학교, 3사단, 23사단, 706 특공연대 등과 자매결연을 하여 진중세례식을 베풀고, 각종 행사를 지원하여 군 복음화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다.

제3기 설교사역도고 세미나 개강

매주 수요일 오후 1시 - 609호

3기 설교사역도고 세미나가 지난 9일(수) 오후 1시 609호에서 열렸다.

설교사역도고 세미나는 도고사역의 의의, 도고의 특권과 의무, 도고의 승리의 모본, 영적 전쟁의 승리를 위한 도고, 설교사역 도고의 중요성과 실제 등을 배우게 되며 5월 14일(수)까지 6주간 매주 수요일 오후 1시 609호에서 계속된다.

강사로는 정수길 목사가 선다. 수료는 5월 18일(주일) 찬양예배 시간에 한다. 성도들의 많은 참여 바란다.

잠자는 프랑스를 흔들어...

서문석 장로(제16차 김치세미나 준비위원장)

제16차 김치(KIMCHI) 신학 세미나가 오는 5월 19일(월)에 시작된다.

우리교회 부설 한국기독교문화진흥원·한국교회 갱신연구원에서 해마다 다 문화권의 영향력 있는 교계 지도자를 초청하여 바른 신학과 영적 재충전의 기회를 부여하고 한국 교회의 성장 요인과 현장을 보며 자국 복음화의 길을 모색하기 위해 해마다 김치 신학세미나를 개최하고 있다.

김치란(KIMCHI: Korea Institute for Mission and Church renewal International) 영어 첫 글자를 모아 만든 것이다. 이는 우리 식탁에서 변함없이 사랑 받아 온 김치처럼 세계 교회의 영적 입맛을 돋워 주자는 의미도 있다.

문화권별로 실시하는 김치 신학 세미나는 1990년에 제1차로 개최한 이래 동구권, 중국어권, 힌두교권, 아프리카, 모슬렘권, 러시아권, 오세아니아, 유럽, 미주 등, 각기 다른 권역의 세계 교계 지도자들이 참가했으며 금번 제 16차 김치 신학 세미나는 프랑스 교회 지도자 32명을 초청한다.

프랑스의 모든 사회 구조가 기독교 문화권이라고 자부하고 있고, 기독교 문화를 꽃피워 생활 자체가 기독교 문화로 자리 매김하고 있는 그들이지만, 지금



은 모든 것이 세속화되어 잠자고 있는 저들에게 영적인 깊은 잠에서 깨어나게 해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부여 되었다.

이제 자국 복음화를 책임질 저들로 하여금 선교사들이 들어가 사역하는 일 못지않게 중요한 선교전략으로 삼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을 다시 한 번 확인하고 세계교회를 섬기고자 하는 것이 세미나의 목적이라 할 것이다.

우리교회 설립과 더불어 자라온 김치 신학 세미나가 벌써 16차를 맞아 우리보다 모든 면에서 특히 경제적으로 앞섰다고 자부하는 저들을 초청하여 세미나를 개최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가슴 벅찬 일인지 모르겠다. 더욱이 권위있는 세계적 기구인 로잔 위원회로부터 공인을 받은 세미나로 자리매김을 할 수 있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고 할 수 있다 하겠다.

올해는 더욱 큰 기도와 관심과 헌신이 필요하고 끊임없는 협력이 요청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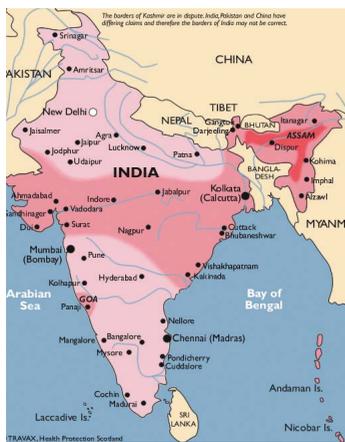
우리가 행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지상명령을 전적으로 순종하여 영적으로 잠자고 있는 저 프랑스를 잠에서 깨워 전 유럽이 영적으로 갱신되는 우리의 간절한 소망이 있다. 이를 위하여 모범적이고 질서 있는 경건한 세미나가 되도록 우리 모두가 한마음으로 기도하여야 하겠다.



15차 KIMCHI 신학세미나

8기 단기선교자-인도

죽은 영혼의 나라 인도



여행해보면 셀 수도 없이 많은 신들과 마주치는 인도에서 전생의 업보에 따라 영원히 이 세상에 여러 가지 모습으로 환생한다고 하는 윤회사상은 선교에 가장 큰 걸림돌 중

의 하나일 것이다.

인도의 종교인 힌두교는 페르시아인들이 인더스(Indus)강 유역에 거주하는 아리아인(Aryans)들을 신두(Sindhu)라고 부른데서 유래한 것이다. 힌두와 그것을 중심으로 하는 문화권의 특징을 밀턴 싱어(Milton Singer)는 '그들은 마하바라타(Mahabharata), 라마 야나(Ramayana), 바가와따 뿌라나(Bhagavatapurana)의 신들뿐만 아니라 수많은 지방 신들을 숭배한다.'로 말한다.

힌두교는 다른 종교의 교의에 대해서 공격적인 자세를 취하는 일은 드물며 다른 종교의 교리도 하나의 진리로서 충분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관대한 경향을 나타낸다. 이와 같은 힌두교의 속성은 이것을 비배타적인 종교로 오해하게 할 위험이 있다.

그러나 힌두교와 같이 독특한 배타성을 계발한 종교는 없을 것이다. 유대교의 인종적인 배타성과는 성격이 다르지만 힌두교도 그 신자를 선별하는데 있어서 선천적인 자격을 요구한다. 즉, 카스트에 속한 부모에게서 태어난 힌두가 아니라면 어느 누구도 힌두교와 진정한 신자로 자처할 수 없다.

힌두교는 다른 종교에 대해 독특한 방법으로 대처한다. 수많은 신조와 신앙형태를 가진 힌두교로서는 외래종교가 주장하는 가르침이 새로운 것이 될 수 없다는 태도를 힌두교는 취한다. 예를 들어 기독교의 사랑의 정신은 박띠(Bhakti)사상과 유사한 것이고 평등의 정신과 유사한 개념은 고대경전에서 얼마든지 찾을 수 있다는 것이 힌두교의 주장이다. 또 기독교의 예수님(Jesus Christ)도 일단 힌두 학자의 손을 거치면 비슈누(Vishnu)신의 화신 중의 하나가 되거나 3억 3천만에 달하는 신들 중의 하나로 변화하

게 된다. 이와 같이 힌두교는 다른 종교를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포용하는 듯한 형태를 취해 외래종교의 가치를 약화시키는 것이다. 즉, 다른 종교가 외치는 교리와 힌두교의 그것과의 공통점을 찾고 또 새로운 개념은 힌두적인 관점에서 흡수하여 외래종교를 별다른 가치가 없는 존재로 만들어 버리는 것이다. 그러나 외래종교가 힌두교에 끝내 포용되지 않을 경우, 힌두교는 그 종교의 신자들을 사회의 예외적인 집단으로 고립시켜 버린다. 따라서 비힌두들은 인도의 사회 내에서 독립된 자급자족의 집단으로 발전하거나 또 여러 형태로 가해지는 사회적 불이익을 감수해야만 한다.

간략하게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교회는 어찌 보면 이 세상에서 가장 선교하기 힘든 나라, 그들이 만들어낸 수많은 잠신의 노예가 되어 한번 뿐인 인생을 체념하고 다음 생에서는 더 좋은 계급(카스트)으로 태어나겠지 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죽은 영혼의 나라 인도에 단기선교단을 파송한다.

단기선교단에 참여하는 모든 이들과 파송한 이들을 기도 후 원하게 될 무를 선교사 된 우리 성도들도 더욱 뜨거운 기도로 무장하여야 할 것이다.

-편집부

5월4일 어린이 청소년 초청 대회

- 어른은 어린이 세 사람, 어린이는 친구 세 사람 -

“애들이 교회가자!”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가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 대를 잇는 신앙운동을 펼치고 있다. 이에 우리교회는 ‘애들이 교회가자’라는 표어에 따라 어른은 어린이 세 사람, 어린이는 친구 세 사람을 교회로 초청하는 행사를 계획하고 있다.

이 전도초청행사를 통해 대한민국 모든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일단 교회로 발을 들여놓도록 하기 위해 우리교회 유·초·중·고등부 교사와 학생들은 전력투구하고 있다.

은 교회가 기도와 전도로 이 일에 참여해야 한다.

특별찬양

오늘저녁 찬양예배 특별찬양은 영어예배부 예루살렘 찬양대가 합창과 중창 그리고 독창과 기악으로 찬양을 드린다. 그동안 음악계의 저명한 예술인을 초청하여 순서를 마련하여 왔으나 올해부터는 이에 더하여 우리교회의 유·초등부 찬양대로부터 예배를 맡은 10개의 찬양대 모두가 골고루 참여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예루살렘 찬양대가 그 첫 순서를 맡은 오늘 저녁에는 “모든 것이 밝고 아름답네” (C.F. Alexander 작곡)외에 4곡으로 찬양 드린다. 출연에는 김문영 집사(Sop. 독창, 예루살렘 찬양대 지휘자) 김미리엄(플루트) 박성민(첼로) 은중기(트럼펫), 반주는 김수정 선생과 박선희 선생이 맡는다.

2008 교구찬양대회

2008년 교구 찬양대회를 위한 준비가 한창이다. 이번 교구찬양대회는 5월16일(금) 오후 7시 분당에서 열린다.

부정에서 긍정으로...

박승재 성도(1교구)



먼저 부족하고 미련한 죄인을 깨우쳐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지난 12주 동안 장석남 목사님을 비롯한 스텝진과 32기 수료생 모두에게 함께하신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드립니다.

저는 어머니의 강권으로 20여 년 전부터 하나님을 믿어왔습니다만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였고 주일날 성경책을 들고 교회를 드나드는 형식적인 신자에 불과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믿는다는 사람이 이렇게 형식적인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는가 하는 부끄러운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집사님과 상의한 끝에 나이 한살이라도 더 먹기 전에 새로운 환경에서 새롭게 시작하기로 결단하고 교회를 물색 중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작년7월부터 서울교회에 등록하여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에 의하여 양육을 받아 믿음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전도학교에 들어가게 된 동기는 이왕에 믿으려면 좀 더 잘 믿어보자는 단순한 생각에서 아내와 함께 들어갔고 주별로 편성된 목사님의 믿도 있는 강의 시간표에 따라 효과적인 전도전략을 배우고 관련 성경 구절을 암송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저에게 더욱 가까이 다가오심을 발견하고 저의 믿음도 성장하고 있

음을 느끼고 있습니다.

특히 매일 매일의 과제물을 예습하고 상황별로 체계화 시킨 복음 제시문을 암기하는 과정은 전도자의 내적능력을 향상시킬 뿐만 아니라 성도의 믿음을 한층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사료되어 많은 성도님들이 함께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별한 느낌은 교실에서 영성훈련과 이론수업을 마치고 곧바로 교회 앞 도로변으로 나가 전도실습을 하였는데 처음에는 쑥스러워 지나가는 사람에게 다가가는 것이 쉽지 않았으나 시간이 거듭될수록 자신감 있게 다가가서 전도지를 전달하는 자신을 발견하며 하나님께서 함께하심을 체험했습니다.

또한 믿지 않는 저의 형제와 직장의 동료직원들에게 부자와 지나사로의 비유를 설명하며 믿지 않으면 안 되는 당위성을 자신감 있게 전했을 때 그들의 반응이 부정에서 긍정으로 변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전하는 자가 확실히 알고 전해야 전도가 되고, 아는 만큼 보이고, 아는 만큼 믿어진다는 경험자들의 이야기가 실감 있게 다가오는 것을 새삼 느꼈습니다.

앞으로 본 과정에서 배운 내용과 전도방법을 몸에 익혀서 저의 친족과 주변의 지인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리고 하나님의 영역을 넓히는데 힘쓰겠습니다.

동정

■ 이종윤 목사는 14일(월) 몽골 복음주의 협의회 회장과 총무의 예방을 받는다. 17일(목) 북한구원운동 공동회장단을 소집한다. 연세대 고문상희 교수 10주년 기념 논문집 증정식 예배 설교를 한다. 18일(금) 당회원들과 선교사 선발을 위한 인터뷰를 한다.

■ 특남 : (10교구) 김대훈 집사 유보영 성도 가정
 ■ 18대 국회의원 당선: (14교구) 공성진 성도
 ■ 교역자 휴대전화번호 변경: 서명철 목사 010-3329-4054, 주원순 선생 010-2282-4054

■ 주간 식당 봉사: 한나전도회(4.13) 당회원(4.20)
 ■ 금주의 식사: 진승근 집사 이혜선 집사 가정 (어머니 장례를 은혜 중에 마치고)

■ 예배 및 집회

구분	시간	
주일예배	I부	오전 9시
	II부	오전 11시20분
	III부	오후 2시
찬양예배	주일 오후 5시	
영어예배	주일 오전 11시20분	
수요예배	I부	오전 11시
	II부	오후 7시
금요기도회	오후 8시30분	
새벽기도회	오전 5시30분	

서울 주간기도

●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

- 올해 안에 한 가정 이상 전도하게 하소서. (5월4일 '애들이 교회가자' 대한민국 모든 어린이·청소년을 교회로 인도하게 하소서.)
- 아가페 타운 건설, 은혜롭게 이루어지도록
- 서울성경대학, 33학기 목회자세미나, 16차 KIMCHI세미나, 각종 열린프로그램 위하여
- 복음화된 통일조국을 위하여

■ 교회오시는 길

